

# 月城垓子 2號 木簡에 보이는 尊稱語 ‘足下’에 대하여\*

李 泳 鎬\*\*

- I. 머리말
- II. ‘大鳥知郎足下’의 해석
- III. 한국문헌에 나타난 ‘足下’의 용례
- IV. 존칭어 ‘足下’의 신라 전파
- V. 맺음말

## 국문초록

월성해자 2호 목간은 4면 문서목간으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서는 제1행에 대해 기왕의 판독과 해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오지랑(大鳥知郎)’은 ‘대조지랑(大鳥知郎)’으로 읽어야 하며, ‘대오(大鳥)’는 17관등 가운데 15위의 관등이 아니라, ‘대조(大鳥)’ 또는 ‘대조지(大鳥知)’라는 인명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신라와 백제 목간의 사례나 신라 문헌자료를 통해, ‘万拜’보다는 ‘再拜’로 판독한 견해가 옳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再拜란 용어는 문헌상으로 5세기의 사실부터 등장하며, 6세기 진평왕대에 많이 나타나고, 삼국통일 이후 확산되었다. 이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5801)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 leeyho@knu.ac.kr

중국식 문서형식의 수용과 유교적 예제가 정착되어 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足下는 ‘발 아래’의 뜻과 존칭어로서 ‘그대’ 정도의 뜻 등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월성해자 목간은 존칭어 ‘족하’를 그대로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족하의 사례를 한국문헌자료에서 찾아, 후삼국시대 국왕 사이에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족하 칭호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에게 사용하였으며, ‘족하’ 칭호를 사용한 대조지랑 또한 낮은 신분의 인물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였다.

존칭어 ‘足下’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秦漢時代의 간독자료와 문헌자료에서 많은 족하의 용례가 있었다. 시기에 따라 사용 대상에 차이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도 사용되었다. 월성해자 2호 목간에서 ‘족하’가 사용되었고, 8세기 전반 경 일본의 ‘족하’ 사례를 통해, 이 용어 또한 중국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추론하였다.

月城垓子 2호 목간은 존칭어 ‘足下’가 신라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였다. 만약 이 목간이 아니었다면, ‘足下’ 칭호는 신라 말기에나 사용되었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목간으로 인해, 그 사용 시기를 소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월성해자 2호 목간에서 찾아낸 또 하나의 성과였다.

◆ 주제어

월성해자, 목간, 존칭어, 족하, 대조지랑

## I. 머리말

월성해자 목간은 1985년과 1986년 경주시 인왕동 449번지 일대의 월성해자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2002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간행한 『文字로 본 新羅』 특별전 도록에 ‘大烏知郎足下’ 운운의 목간을 포함한 4점의 월성해자 목간이 실렸고,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발행 『韓國의 古代木簡』, 2006년의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에 월성해자 출토 목간 전체가 적외선 사진과 함께 게재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더욱이 2006년 말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月城孩子 발굴조사보고서Ⅱ-고찰-』이 간행되어 비로소 발굴기관에 의해 공식적인 보고가 완료되었다. 이 책은 2004년에 발행한 본문, 사진 편에 이은 것으로 월성해자 목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 뒤 2009년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공동 발행 『나무 속 암호, 목간』에서는 새로 발견된 목간을 포함한 한국 고대 목간 전체를 다시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고찰하려고 하는 월성해자 2호 목간은<sup>1)</sup> 1986년 4월 24일, 4480N20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 중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목간이 바로 2호 목간이었다. 이는 4면에 글씨가 쓰여진 흔히 觚라고 불리는 문서목간으로, 육안으로 보아도 판독이 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자료였기 때문이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의 노력으로 역사학적 측면, 국어학적 측면, 그리고 중국과 일본 사례와의 비교 등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이해도 크게 심화되었다.

---

1)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 예맥출판사, 2004 및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2006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2009 등에서는 149호 목간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는 한국고대목간 전체의 일련번호로서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孩子 발굴조사보고서(Ⅱ) -고찰편-』, 2006을 따라 월성해자 2호 목간으로 부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 목간에 보이는 ‘足下’라는 존칭어에 주목하려 한다. 그간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라 말 최치원의 글 속에서 ‘足下’가 사용되었고, 또한 후삼국시대 後百濟王 甄萱이 高麗太祖 王建에게 보낸 書信이나,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答書에서 ‘足下’가 사용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월성해자 2호 목간의 足下의 의미를 재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록 2호 목간의 한 부분에 대한 검토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이 목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호 목간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는 다음 기회를 약속한다.

## II. ‘大鳥知郎足下’의 해석

月城垓子 목간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해자의 폐기 시기를 기준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상준은 해자 뺨층에서 출토된 토기와 목간의 ‘道使’ 명문을 토대로 5세기(후반)~7세기로 보았으며,<sup>2)</sup> 김낙중은 해자의 사용 시기를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무렵으로 보고, 중심 연대는 6세기라고 하였다.<sup>3)</sup> 또한 이용현은 대체로 6세기 초~7세기 말이며, 그 중심은 6세기 후반과 7세기 후반이라 하였고,<sup>4)</sup> 이경섭은 약간 범위를 넓혀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중후반이라고 하였다.<sup>5)</sup>

2호 목간은 월성해자 목간을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목되었다. 그리하여 종이 구입과 관련하여 관부와 관부 사이에 사




2) 李相俊,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 1997.

3) 金洛中,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 『韓國上古史學報』 27, 1998.

4) 이용현, 「경주 월성해자 목간」,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2006.

5) 李京燮, 「新羅 月城垓子 木簡의 출토상황과 月城 周邊의 景觀 변화」,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제1행	제2행	제3행	제4행
<p>월성해자 2호 목간과 적외선 사진.          (『韓國의 古代木簡』, 2004. 158~161쪽.)</p>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행 『나무 속 암호, 목간』(2009)에 실린 月城孩子 2號木簡의 判讀은 다음과 같다.

- (1)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 (2) 「經中入用思買白不雖紙一二斤」
- (3) 「牒垂賜教在之後事者命盡」
- (4) 「使內」

위 목간에서는 먼저 어느 면이 1면인가 하는 것과 읽는 순서가 문제였다. 따라서 그 순서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었다. 위에 제시한 (1)(2)(3)(4)의 순<sup>8)</sup> 외에, (4)(3)(2)(1)의 순으로 읽기도 하고<sup>9)</sup>, (3)(2)(1)(4)의 순으로 읽기도 한다.<sup>10)</sup> 여기서는 도록에서 제시한 순서에 따라 (1)(2)(3)(4)의 순으로 읽기로 한다.

일본 측 연구자들은 이를 ‘牒’의 문서양식에 근거한 목간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부 사이에 보내진 첩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지만,<sup>11)</sup> 개인이 보내는 첩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12)</sup> 또한 일본의 소위 ‘某前白(申)’ 목간에 상당하는 上申文書로<sup>13)</sup> 보는 견해도 있다.

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 2004, 438쪽 및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2006, 143쪽.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134~135쪽.  
市 大樹, 「慶州月城塚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日韓文化財論集』 I, 奈文研學報 第77冊, 2008 ;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522쪽.

9) 李成市, 「韓國木簡研究의 現況과 咸安城山山城 出土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87쪽.

深津行徳, 「古代東アジアの書體·書風」, 『文字と古代日本 5 -文字表現の獲得-』, 吉川弘文館, 2006, 246~247쪽.

10) 李成市,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2005, 172쪽.

三上喜孝, 「文書樣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歴史·地理·人類學論叢』 7, 2006, 106쪽.

11) 李成市, 「朝鮮の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2005, 172쪽.

12) 三上喜孝, 「文書樣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歴史·地理·人類學論叢』 7, 2006, 107쪽.

13)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137~138쪽.

買白不踰紙란 구절로 보아 종이 구입과 관련한 문서목간이란 점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다. 전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거니와,<sup>14)</sup> 여기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1행의 해석이다. 이에 대한 제가의 판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연구자	판독과 해석	비고
이성시 (2000)	大鳥女郎足下萬引白了	
경주박 (2002)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창문연 (2004)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판독
윤선태 (2005)	大鳥知郎足下万△ <sup>16)</sup> 白 ▷ 大鳥知郎 足下에 万△ 아웁니다.	
이성시 (2005)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 대오(관등 15위)지랑의 족하인 만인이 아뢰기를 마치다.	
창문연 (2006)	大鳥矩郎足下萬行白之	손 환 일 의 판독
深眞行德 (2006)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 大鳥知郎이 (처치를 끝내었음?) 보고하다.	
三上喜孝 (2006)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 大鳥(관등 15위)知郎 足下께 萬引이 사뢰었다.	
이용현 (2006)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	

14) 제3행 白不踰紙의 ‘紙’는 이체자인 ‘糸’ 변에 ‘杼’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모양은 紙 아래 巾자를 쓴 모습이다. 杼 또한 紙의 이체자이다.

15) 이글의 각주 및 金永旭,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口訣研究』 19, 2007 ; 鄭在永, 「月城孩子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2008 ; 李丞宰,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震檀學報』 119, 2013 ; 權仁漣, 「목간을 통해서 본 사경소의 풍경」, 『震檀學報』 119, 2013 등 참조. ‘경주박’은 국립경주박물관, ‘창문연’은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를 말함.



김영옥 (2007)	大鳥知郎足下万拜白   ▷대조지랑 족하께 만인이 사됩니다.	
정재영 (2008)	大鳥知郎足下万拜白   ▷大鳥知郎足下(大鳥知郎에게), 万拜하며 말한다.	
이경섭 (2008)	大鳥知郎足下万拜白之 ▷ 대오지랑 족하에게 萬拜하며 아됩니다.	
市大樹 (2008)	大鳥知郎足下万拜白々 ▷ 大鳥知郎의 足下에 万拜하고 아됩니다. ▷ 大鳥知郎의 足下에 항상 拜禮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李均明 (2008)	大鳥知郎足下再拜白	
李丞宰 (2013)	大鳥知郎足下可行白   ▷ 大鳥知郎 足下(께) 可行(이) 사됩니다.	
權仁澣 (2013)	大鳥知郎足下万拜白   ▷ 大鳥知郎 足下께 萬拜하고 사됩니다.	
윤선태 (2018)	大鳥知郎足下万拜白之	
김병준 (2018)	大鳥知郎足下再拜白 ▷大鳥知님께 재배하여 보고드립니다.	

제1행은 처음 이성시가 “大鳥女郎足下萬引白了”으로 읽었다. 女郎은 일부에서 矩郎으로 읽기도 했으나, 곧 知郎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大鳥 판독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윤선태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大鳥知郎足下万引白了(?)”의 판독이 이성 시에 의해 새로 제시되었다. 이후 서두의 두 글자는 여전히 ‘大鳥’로 판독하는 견해(손환일, 深津行德, 김영옥, 정재영, 권인한, 李均明)와 ‘大鳥’

16) 윤선태는 ‘拜’ 자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단은 석독 불명으로 처리하였다. 그는 万△를 인명이나 謙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 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135쪽). 그러나 뒤에 발표한 글에서는 万拜로 확정하였다.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木簡과 文字』 20, 2018, 85쪽.

로 판독한 견해(三上喜孝, 이용현, 이경섭, 市大樹, 김병준)로 크게 나뉘게 되었다. ‘萬引’은 万引 또는 萬行, 可行 등으로 읽어 보고한 자로 파악한 견해가 있었지만, 최근 ‘万拜’로 판독한 견해가 나타났다(정재영, 이경섭, 市大樹, 권인한, 윤선태). 그런데 이를 万拜가 아닌 再拜로 읽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李均明, 김병준). 이처럼 大, 知郎, 足下의 판독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烏’, ‘万引’ 등에 대해서는 이론이 제기된 것이다. 말미의 종결사 了, 之의 판독 또한 논란이 있지만, 내용 파악과 무관하므로 제외하고, 그 앞부분의 판독을 자세히 살피기로 하자.

‘大鳥知郎’을 ‘大鳥知郎’으로 읽은 경우가 있음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대조지랑으로 판독한 경우에는 ‘대조’를 인명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대오지랑으로 읽은 경우 ‘대오’ 또는 ‘대오지’를 신라 관등으로 이해하고, 이의 표기를 근거로 목간의 제작시기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곧 大鳥(人名)+知郎(존칭접미사)로 이해한 견해가 있는 반면, 大鳥(신라 관등 17位 중 15位)+知郎(존칭접미사)/大鳥知(신라 관 17위 중 15위)+郎(존칭접미사)으로 이해한 것이다.

서두의 두 글자를 大鳥로 보든지 大鳥로 보든지 간에, 사람 이름이라면 특이한 사례다. ‘큰 까마귀’든 ‘큰 새’든 새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烏와 鳥의 판독은 모호한 면이 있지만, 글자 자체로는 ‘鳥’로 판독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그런데도 이를 ‘大鳥’로 판독한 것은 관등 ‘大鳥’에 구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7)</sup> 大鳥라면 ‘큰 새’를 뜻하여 인명으로 어색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sup>18)</sup>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까마귀를 뜻하는 ‘烏’자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라시대의 인명에

17) 市大樹, 『慶州月城埵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日韓文化財論集』I, 奈文研學報 第7冊, 2008 ; 『飛鳥藤原本簡の研究』, 2010, 518쪽.

18) 예부터 이름을 짓는 데는 國名, 日月名, 隱疾名, 山川名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禮記』曲禮 上篇 “名子者 不以國 不以日月 不以山川”). 서현이 庚辰日에 길몽을 꾸고 낳은 김유신의 이름을 ‘庚辰’ 아닌 ‘庚信’으로 지은 데서 그러한 풍습을 엿볼 수 있다(『삼국사기』 권41, 열전 김유신 상). 그러나 關川, 須彌山 등의 이름에서 보듯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다.

‘鳥’자는 군데군데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薛烏儒, 延鳥郎, 細鳥女, 起鳥公, 得鳥 등의 사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鳥’를 일반적인 ‘새(鳥類)’의 의미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봉황’ 새, ‘별(星)’이름인 朱鳥 등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sup>19)</sup> 대조의 의미는 후자처럼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大鳥知郎은 大鳥(인명)+ 知(존칭접미사)+ 郎(존칭접미사) 또는 大鳥知(인명)<sup>20)</sup>+ 郎(존칭접미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万引’ ‘万拜’ ‘再拜’의 判讀이다. 처음 万引으로 읽어 인명으로 보고자로 파악하였으나, 점차 万拜로 점차 의견이 모아졌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최근 중국 목간을 자료로 서체를 상세히 분석하여 再拜가 옳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1)</sup> 또한 再拜는 상용구로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며, 문서 중 일정한 장소에 출현하기 때문에 글자가 많이 변형되어도 서사자나 독자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万’이라고 보이는 글자도 한두 획 더 생략될 수 있으며, 先秦 이래 清代까지 다른 글자로 대체되지 않고 동일한 표현이 계속되었다. 겸양어구 중에는 再拜라는 표현은 변함없이 시용되었지만, 万拜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으며, 또한 재배라는 어휘가 白자와 함께 붙어 사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은 점도 지적되었다.<sup>22)</sup> 한국 문헌자료에서도 再拜는 나타나지만 万拜의 사례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再拜가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행히 재배의 사례는 삼국시대 목간에서 나타나는데,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 목간과 2019년 4월에 공개된 경주 월성해자 출토 3면 목간이 그것이다.

---

19) 鳥의 뜻과 음은 ‘새’ 또는 ‘봉황’ 조, ‘별자리 이름’ 조로서, 후자는 남방의 朱鳥七宿를 가리킨다고 한다.  
 20) 인명 말마에 ‘知’가 붙는 인물로 실성이사금의 아버지 이찬 大西知가 있다.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참조.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미추왕의 弟라고 하였다.  
 21) 李均明, 「韓中簡牘 비교연구 -중국 간독의 분류설명에 의거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2008.  
 22) 김병준, 「월성 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중국 출토 고대 행정 문서 자료와의 비교-」, 『木簡과 文字』 20, 2018, 159~161쪽.

「×□再拜×」(부여 능신리 출토 목간)<sup>23)</sup>

「△△年正月十七日△△村在幢主再拜△淚廩典△岑△△」(신출토 월성해자 3면 목간)<sup>24)</sup>

이 자료를 통해 백제와 신라에서 재배의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목간의 앞뒤가 떨어져 나가 내용을 잘 알 수 없지만, 사비시대인 6,7세기 목간으로 추정되고, 후자는 △△村에 있는 幢主가 再拜하고 무엇을 아된다는 정도의 뜻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는 2호 목간 처럼 같은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이에 앞서 2017년에는 월성 해자유적에서 신출토 목간 7점이 공개되었다. 그 가운데는 ‘戊戌年’ ‘丙午年’ ‘△子年’이 새겨진 목간이 나와, 이들 자료의 사용 시점도 6세기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sup>25)</sup> 따라서 이를 살펴더라도 재배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재배의 사례는 문헌에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 (1) 堤上再拜對曰“臣聞主憂臣辱，主辱臣死，若論難易而後行謂之不忠，圖死生而後動，謂之無勇，臣雖不肖，願受命行矣。”(중략) 時堤上聞此言，再拜辭朝而騎馬，不入家而行，直至於栗浦之濱(『삼국유사』 권1, 기이, 나물왕 김제상)
- (2) 我等奈林穴禮骨火等三所護國之神(중략) 言訖而隱. [庾信]公聞之驚仆，再拜而出. 宿於骨火館，謂白石曰(하락) (동상, 권1, 기이 金庾信)

23)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암호, 목간』, 2009, 124쪽, 309면 목간.

2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2019, 173~174쪽.

25) 병오년 목간과 무술년 목간은 하나의 목간에 앞뒤로 묶여져 있는데, 병오년은 526년, 586년 등으로, 무술년은 그보다 8년 빠른 518년, 578년 등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후보돈은 병오년을 586년으로 이해하면서, 무술년을 ‘[代成]年’으로 판독하였다(주보돈, 『月城과 垓字 출토 木簡의 의미』, 『木簡과 文字』 20, 2018, 32쪽). 그러나 渡辺晃宏, 『月城垓字 출토 木簡과 日本 古代木簡의 비교』, 『木簡과 文字』 20, 2018에서는 ‘戊戌年’으로 판독하면서 관인의 경력을 기재한 일본의 이력서 목간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아울러 검토하면 ‘△子年’은 丙子年인 556년, 戊子年인 568년, 庚子年인 580년, 壬子年인 592년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3) 眞平王 建福二十八年 辛未, 公年十七歲 (중략) [庾信]公聞之, 知非常人, 再拜進曰 僕新羅人也, 見國之讐, 痛心疾首, 故來此, 冀有所遇耳. 伏乞長者憫我精誠, 授之方術. (『삼국사기』 권41, 열전 金庾信 上)
- (4) 庾信再拜曰 爵祿公器, 所以酬功, 何謂過乎 王允之 (동상, 권47, 열전 裂起)
- (5) 丕寧子再拜云 “今於稠人廣衆之中, 獨以事屬我, 可謂知己矣, 固當以死報之.” (동상 권47, 열전 丕寧子)
- (6) 嘉實再拜曰 非敢望也, 是所願焉. 於是, 嘉實退而請期 (하략) (동상 권48, 열전 薛氏女)
- (7) 摠章元年戊辰, 高宗皇帝遣英國公李勣, 帥師伐高句麗, 又遣仁問徵兵於我 (중략) 擊平壤月餘, 執王臧, 仁問使王跪於英公前, 數其罪, [臧]王再拜, 英公禮答之 (동상, 권44, 열전 金仁問)
- (8) 強首再拜曰 貧且賤非所羞也, 學道而不行之, 誠所羞也. (동상, 권46, 열전 強首)
- (9)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동상, 권7, 신라본기 신문왕 7년 하4월)
- (10)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삼국유사』 권2, 기이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위에서 보듯이 재배 용어는 『삼국유사』 나물왕 김제상 조에서 처음 나타난다. 나물왕이 왕의 셋째 아들 美海를 왜국에 보내고, 눌지왕이 즉위하여 동생(나물왕의 둘째 아들)을 고구려에 볼모 보내었다.<sup>26)</sup> 그 후 눌지왕은 이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김제상에게 맡기자 그는 왕에게 재배하고 고구려와 왜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여기서 이 표현을 그대로 믿는다면, 5세기 초에는 이미 재배 용어가 신라에서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재배 용어는 진평왕대 또는 그 이후의 기사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김유신의 일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설씨녀와 혼인을 약속한 가실 또한 진평왕대의 인물이었다. 이는 6,7세기에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재배 용어는 庾信再拜曰, 丕寧子再拜云, 嘉實再拜曰, 強首

26) 『삼국사기』에는 모두 실성왕대의 일로 되어 있다. 동 권3, 신라본기 실성이사금 원년 3월조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 未斯欣爲質” 및 실성이사금 11년조 “以奈勿王子卜好 質於高句麗” 참조. 이는 실성왕대의 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朱甫暉, 「朴堤上과 5세기 초 新羅의 政治 動向」, 『慶北史學』 21, 1998. 참조.

再拜曰처럼 대화체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大鳥知郎足下에게 ‘再拜白’이라 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이러한 표현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며, 윗사람과의 대화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구려의 첩자 백석에게 속아 끌려가던 김유신이 호국삼신의 계시로 이를 알게 되자 재배하고 밖으로 나갔고, 고구려가 망한 뒤 보장왕이 당의 장수 이적에게 재배하자 이적 또한 예로써 답했다고 한다. 또한 신문왕이 祖廟에 致祭하면서 재배했다든가, 경덕왕대의 충담사가 왕사 책봉 요청을 사양하며 재배했다는 것 등을 보면, 중국식 문서형식과 함께 유교식 의례가 삼국통일 무렵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다고 하겠다.

### 3. 한국문헌에 나타난 ‘足下’의 용례

지금까지 大鳥知郎으로 판독한 것은 실은 大鳥知郎이며, 大鳥/大鳥知는 사람의 이름임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再拜라는 용어를 통해서 중국식 문서 표현과 유교식 의례가 신라 사회에 널리 수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大鳥知郎足下の 의미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足下’의 뜻을 살펴보기로 하자. 족하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발 아래’란 글자 그대로의 뜻을 제외하면, 그대처럼 ‘윗사람이나 같은 또래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다고 한다.<sup>27)</sup> 그렇다면 월성해자 2호 목간에서 사용된 족하는 우선 후자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문헌에서 족하 용어의 사례는 일찍부터 수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漢書』, 『三國志』, 『戰國策』, 『文選』 등에서 허다한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쓴 문헌자료에서는 최치원의 저술인 『桂苑筆耕集』에 처음 보인다. 최치원은 12세인 868년 입당 유학하여 18세 때인 874년 9월 빈공진사시에 급제하였다. 876년 전주 율수현위가 되었다가 880년 5월부터 884년 8월까지 4년간 高駘의 종사관으로

2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권13, 2005, 431쪽.

감찰과 문환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884년 10월 고병의 변진을 떠나 귀국길에 올라, 885년 3월에 신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이듬 해 당에 있을 때의 작품을 간추려 정강왕에게 바친 것이 바로 『계원필경집』이었던 것이다.

『桂苑筆耕集』 권11, 書 「答徐州時溥書」에서 최치원은 서주 시보에게 글을 올리면서 족하란 호칭을 사용하였다.<sup>28)</sup>

答徐州時溥書

①六月十六日。某白。僕射足下。特辱長牒。仍移公牒。細詳來旨。頗涉多端。有同戲以前言。無乃驚於衆聽。雖倚兵強力壯。其如作僞心勞。且泗州舊隸仁封。新標使額。固非郡守專輒。蓋是朝廷指揮。爲在頃年。獨全忠節。遂編名於防禦。永傳賞於驍雄。近者久結隣讎。蓋遵國典。獨行直道。固守危城。嘗膽爭先。斷頭非苦。此亦古人云寧爲忠鬼。不作叛臣之義也。況于尙書有定國恩威。有栗磾武勇。自安疲俗。甚洽群情。每將勾踐單繆均沾無黨。不獨臧洪薄粥分啜有餘。固當散三年之儲。充一日之費。寡能敵衆。安可待勞。豈比於築室反耕。杜門却掃者哉。忽覩來示云。泗州獨阻淮河。自牢城壘。使四方多阻。諸道莫通。而又每於朝廷。妄爲訕謗。今有城中將校。潛來計圖。請少振兵戎。即便期開秦者。大凡人事莫若自知。②足下去年。忍携不禁。求榮頗切。暫奮橫行之氣。果成順守之權。是以。累受國恩。遠膺藩寄。豈可尊身忽物。是己非人。偏致嫌於藺生。終歸過於季氏。其於淮河久阻。道路不通。皆因貴府出兵。不是泗濱爲使。是非可辨。遠近所聆。去歲夏初。早蒙侵伐。呼蟻軍於漣水。拒虎旅於淮山。此緣將援親仁。難逃善戰。爰謀薄伐。用救倒懸。君異荀吳。莫振受降之譽。僕慙呂布。有虧解圍之言。泗州以實奏陳。豈爲謗譏。僕也雖慙知己。嘗敢薦賢。亦曾錄詔寄呈。必合垂情見悉。誰料既踰望始。翻起弊端。甲兵繼興。疆場頻駭。所云泗州城中將校。頻來計圖。此乃巧飾虛辭。遍行長牒。盡知譎誑。孰肯詭隨。③朝廷以足下身處雄城。刃多餘地。委摧綱運。冀濟權宜。但自戢斂兵車。必得通流饋輦。今則却云奉朝廷意旨。收徐泗封疆。廣出師徒。難窮事意。④必若足下訓戎勇銳。報主忠勤。何不親摠全軍。往殲巨憝。早立非常之効。以酬不次之恩。而乃知僕再次西征。卽謀北渡。便侵泗境。來犯淮壖。負國家之寵榮。搆州縣之患害。幸其賊勢。阻此師期。未諭雅懷。何辜聖獎。言但繁

28) 이글의 작성 연대는 882년 이후라고 한다. 장일규, 「해제 : 현전하는 우리나라 고대의 유일한 문집」, 『계원필경집』1, 한국고전번역원, 2009, 32쪽.

於枝葉。事莫究於根源。來示又云。比聞廬州，海州皆爲背叛。累來投款。不遺措詞者。強謂恩情形於書札。顏雖不厚。心且何安。彼東海廬江。偶聚奸惡。異端斯起。既非鄭有人焉。同氣相求。盡是跖之徒也。⑤足下已居重任。不徇危謀。自守詔條。何煩飾說。僕累將軍食。頻救臨淮。爲分逆順之蹤。令保始終之志。實以泗州曾非杞子之無禮。亦類展禽之有詞。每當告急告窮。唯以行仁行義。⑥唯望足下暫息餘怒。深量遠圖。且先報國之誠。無急伐隣之役。兼觀詔書獎諭。請與忠武協和。足見睿情。俾銷微憾。在於臣子。合更慎思。求將安撫氓黎。速自迨追士卒。苟或上負君命。下違物情。隔礙征途。侵凌近境。則亦難辭借一。用試當千。必見傷禽易驚。困獸猶鬪。悔須防後。險已居前。矧乃泗州以抱節爲名。貴鎮以戩兵爲務。泗州則唯遵王化。貴鎮則虛構牒詞。以較否臧。可知曲直。是敢遠申忠告。冀絕後誣。正當聖主蒙塵。未除禍難。何忍諸侯列土。更起兵戎。猛發忠言。懶爲諂笑。勉思大體。勿暴小瑕。必因此日所箴。却得後時見謝。幸從誠信。無損功名。某官某頓首

① 6월 16일에 某는 僕射 足下에게 아뢰입니다.

(상략) 대개 사람의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足下가 去年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영달할 욕심이 간절한 나머지, 횡행하는 기세를 잠시 떨쳐 順守하는 권세를 과연 이루었습니다. (중략) ③ 조정에서는 족하가 웅대한 성에 거하고 무력이 넉넉하다고 해서, 綱運의 일을 위임하며 적절히 조치하도록 기대하였습니다. 단지 兵車를 거두어들이기만 하면, 반드시 화물을 운송하여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徐州와 사주의 封疆을 접수한다.”라고 말하면서, 군사를 대거 출동시키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의도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중략) ④ 만약 족하가 정예부대를 조련하여 임금님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한다면, 어찌하여 직접 全軍을 거느리고 가서 元兇을 섬멸하여 비상한 공을 일찍 세우고 특별한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중략) ⑤ 족하가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비상한 계책을 운용하지는 않고, 詔書의 조목만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가식적인 말을 어찌 그리도 많이 한단 말입니까. (중략) 오직 바라건대, ⑥ 족하도 잠시 노여움을 멈추고 원대한 계책을 세워, 먼저 나라에 보답하는 성의를 바치고, 이웃을 공격하는 싸움은 서두르지 말았으면 합니다.<sup>29)</sup>

위의 글에서는 모두 6번의 족하 용어가 사용되었다. 서두의 ‘某白 僕射 足下’에서 복야와 같은 재상급의 관직에 있는 인물에게 족하의 칭호

29) 한국고전번역원, 이상현 (역) 2010.



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 관직자에게 붙이는 칭호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이 ‘족하’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신라가 아닌 당에서 활동할 때의 사례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족하’가 사용된 사례는 『삼국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동권50, 열전 견훤 조에는 927년 12월 후백제왕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보낸 서신과, 928년 정월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답신이 전하고 있다. 이는 후백제와 고려 사이의 생생한 외교관계를 보여주는 당시의 古文書로서 주목할 만하다.

故十二月日寄書太祖曰“昨者國相金雄廉等, ①將召足下入京, 有同鼈應鼉聲. 是欲鷄披隼翼, 必使生靈塗炭, 宗社丘墟. 僕是用先着祖鞭, 獨揮韓鉞, 誓百寮如皦日, 諭六部以義風. 不意姦臣遁逃, 邦君薨變. 遂奉景明王之表弟獻康王之外孫, 勸卽尊位. 再造危邦, 喪君有君, 於是乎在. ②足下勿詳忠告, 徒聽流言, 百計窺覷, 多方侵擾, 尙不能見僕馬首, 拔僕牛毛. 冬初, 都頭索湘, 束手於星山陣下; 月內, 左將金樂, 曝骸於美理寺前. 殺獲居多, 追擒不少. 強羸若此, 勝敗可知. 所期者, 掛弓於平壤之樓, 飲馬於溟江之水. 然以前月七日, 吳越國使班尙書至, 傳王詔旨: 知卿與高麗, 久通隣好, 共契隣盟, 比因質子之兩亡, 遂失和親之舊好, 互侵疆境, 不戢干戈, 今專發使臣, 赴卿本道, 又移文高麗, 宜各相親比, 永孚于休. 僕義篤尊王, 情深事大. 及聞詔諭, 卽欲祇承, ③但慮足下, 欲罷不能, 困而猶鬪. 今錄詔書寄呈, 請留心詳悉! 且魏 獯迭憊, 終必貽譏, 蚌鷸相持, 亦爲所笑. 宜迷復之爲戒, 無後悔之自貽.”(『삼국사기』 권50, 열전 견훤)<sup>30)</sup>

지난번에 재상 김웅림 등이 ① 장차 족하를 불러 서울에 들어오게 한 것은 마치 작은 자라가 큰 자라의 울음을 따라 모이는 것 같고 이는 종달새가 날개를 헤친 것을 보고 새매의 날개로 착각한 것이니 (중략) ② 족하는 충고를 살피지 않고 한갓 떠도는 말을 듣고 온갖 계책으로 틈을 엿보며, 여러 방향으로 침입하였으나 아직 저의 말머리를 보지 못하였고, 저의 소 털 하나도 뽑지 못하였소. (중략) ③ 황상 열려함은 족하가 싸움을 그만두려고 하여도 그렇지 못하고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히려 싸우려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략)

30) 이 서신은 『三國遺事』 권2, 기이 후백제 견훤 조; 『高麗史』 권1, 태조 10년 12월 조; 『高麗史節要』 태조 10년 12월 조 등에도 실려 있다. 『東文選』 권57에는 「代甄萱寄高麗王書」란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崔承祐의 글이라 하였다.

신라 말 신라의 국왕과 신하들은 쇠퇴해진 국운을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고려 태조와 우호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견훤은 나라를 빼앗을 마음을 갖고 927년 10월에 군대를 이끌고 신라 왕도를 급습하였다.

견훤은 군대를 풀어 크게 약탈하고 경애왕을 살해하였으며, 왕의 族弟 김부를 왕으로 세웠다(경순왕). 그는 왕의 동생 효령과 재상 영경 등을 포로로 잡아 돌아가는 길에 公山 桐藪 부근에서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달려 온 왕건의 5,000 騎兵과 대적하였다. 이 전투에서 견훤의 군대는 왕건의 고려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고려의 장수 김낙과 송겸이 전사하고 모든 군사가 패하여 왕건은 겨우 몸만 빠져 살아나올 수 있었다. 마야흐로 후삼국 통일을 눈앞에 둔 견훤은 승리에 도취하여, 그해 12월 어느 날 왕건에게 위와 같은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자 이듬해 정월 왕건은 견훤에게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냈다.

伏奉吳·越國通和使，班尚書所傳詔書一道，①兼蒙足下辱示長書敘事者。伏以華輶膚使，爰致制書，尺素好音，兼承教誨。捧芝檢而雖增感激，闢華賤而難遣嫌疑。今託廻軒，輒敷危託。僕仰承天假，俯迫人推。過叨將帥之權，獲赴經綸之會。頃以三韓厄會，九土凶荒。黔黎多屬於黃巾，田野無非於赤土。庶幾弭風塵之警，有以救邦國之災。爰自善隣，於焉結好。果見數千里農桑樂業，七八年士卒閑眠。及至酉年，維時陽月，忽焉生事，至於交兵。②足下始輕敵，以直前，若螳螂之拒轍，終知難而勇退，如蚊子之負山，拱手陳辭，指天作誓，今日之後，永世歡和，苟或淪盟，神其殛矣。僕亦尚止戈之武，期不殺之仁，遂解重圍，以休疲卒，不辭質子，但欲安民。此則我有大德於南人也，豈謂敵血未乾，凶威復作，蜂蠆之毒，侵害於生民，狼虎之狂，爲梗於畿甸，金城窳忽，黃屋震驚。仗義尊周，誰似桓·文之霸。乘間謀漢，唯看莽·卓之姦。致使王之至尊，③枉稱子於足下，尊卑失序，上下同憂，以爲非有元輔之忠純，豈得再安於社稷？以僕心無匿惡，志切尊王，將援置於朝廷，使扶危於邦國。④足下見毫釐之小利，忘天地之厚恩，斬戮君王，焚燒宮闕，殖醢卿士，虔劉士民，姬姜則取以同車，珍寶則奪之，罔載。元惡浮於桀紂，不仁甚於獍泉。僕恐極崩天，誠深却日。誓效鷹鷂之逐，以申犬馬之勤。再舉干戈，兩更槐柳。陸擊則雷馳電擊，水攻則虎搏龍騰。動必成功，舉無虛發。遂尹邠於海岸，積甲如山。擒鄒造於城邊，伏尸蔽野。燕山郡畔，斬吉免於軍前。馬利城邊，戮隨晤於藁下。拔任存之日，邢積等數百人捐軀。破清州之時，直

心等四五輩授首. 桐藪望旗而潰散, 京山銜璧以投降. 康州則自南而來歸, 羅府則自西移屬. 侵攻若此, 收復寧遙? 必期泝水營中, 雪張耳千般之恨, 烏江岸上, 成漢王一捷之功. 竟息風波, 求清寔海. 天之所助, 命欲何歸? 況承吳越王殿下, 德洽包荒, 仁深字小, 特出綸於丹禁, 諭敵難於青丘, 既奉訓謀, 敢不尊奉? ⑤若足下祇承睿旨, 悉戡凶機, 不惟副上國之仁恩, 抑可紹海東之絕緒. 若不過而能改, 其如悔不可追.<sup>31)</sup>

엿드려 오월국 通和使 尙書 班씨가 전한 바의 조서 한 통과 ① 아울러 족하의 사정을 서술한 긴 편지를 받았습시다. (중략) ② 족하는 처음 적을 가볍게 보고 직진하였으니 마치 버마제비가 수레를 막는 것과 같았고, 마침내 어려운 줄을 알고 용감히 퇴각하였으니 마치 모기가 산을 등진 것처럼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중략) 왕의 지존한 분으로 하여금 굽혀 ③ 족하에게 자식으로 칭하게 하여, 높고 낮은 상하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중략) ④ 족하는 털끝만한 작은 이익을 보기 위하여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잊고 임금을 목베고 궁궐을 불질렀으며, 신료들을 죽여 젖을 담고, 관료와 백성을 도륙하였으며, 종실의 여자를 취하여 같은 수레에 태우고 보물을 바리에 실어갔으니 (중략) ⑤ 만약 족하가 공경스럽게 조서의 뜻을 받들어 흉한 마음을 거둔다면 상국의 어진 은혜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해동의 끊어진 계통을 이을 수 있지만 만약 허물을 고치지 않는다면 후회해도 늦을 것입니다.

928년 정월, 왕건은 견훤의 신라 왕경 습격과 약탈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결코 기고만장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위의 두 편지에서는 모두 8번이나 족하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글머리에는 수신자와 발신자를 표기하였을 것이지만, 제목을 알 수 없음이 유감이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을 감안하고 앞서 최치원의 글을 상기하면, “高麗大王足下”와 “百濟大王足下”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족하가 ‘그대’처럼 같은 또래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 이름 뒤에 붙여 존칭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견훤이 왕건보다 10살 연장이란 점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은 일국의 왕이었으므로, 단순히 ‘그대’의 뜻이

31) 『삼국유사』 권2, 기이 후백제 견훤 조 ; 『고려사』 권1, 태조 11년 정월 조 ;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1년 정월 조 ; 『동사강목』 등에 실려 있고, 『동문선』 권57에도 「代高麗王答甄萱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최치원이 지었다고 하나 신빙성이 약하다. 최언위가 지었다고 추측되기도 한다.

라기보다는 陛下<sup>32)</sup>, 殿下<sup>33)</sup>, 廳下, 節下, 閣下, 閣下 등과 같은 존칭어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4)</sup> 그러나 적국의 왕에게 보낸 서신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폐하와 같은 극존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 같은 존칭어 ‘足下’의 사용례를 볼 때 15등의 大鳥와 같은 하급 官人에게는 적합한 호칭이 아니라고 하겠다.

9~10세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존칭어인 족하 용어가 6,7세기 월성해자 목간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된다. 만약 이 목간이 아니었다면, ‘足下’ 칭호는 신라 말기에나 사용되었다고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목간으로 인해 그 사용 시기를 소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4. 존칭어 ‘足下’의 신라 전파

목간 문화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래되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족하’ 칭호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된다. 족하 칭호의 사용은 중국과 일본 목간에서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의 『居延漢簡』이나 『居延新簡』,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의 「木簡庫」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파편이거나 판독상의 난점으로 문맥을 잘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지만 비교적 판독 가능한 사례를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중국의 목간에서 추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32) 977년에 건립된 「고달원 원종대사 혜진담비 음기」에서 고려 光宗을 皇帝陛下(乾德九年 歲次辛未 十月二十一日 於元和殿 開讀大藏經時 皇帝陛下 詔曰...)라고 하였다.

33) 890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주사낭혜화상탑비」에서는 진성여왕을 ‘殿下’(謝曰 主臣. 殿下 恕粟饑浮稅, 桂飽餘馨, 俾報德以文, 固多天幸)로, 896년 건립된 「新羅國初月山大崇福寺碑」에서는 眞聖女王을 ‘大王殿下’(伏惟, 大王殿下, 瓊萼聯芳. 璇源激爽, 體英坤德, 纘懿天倫)라고 하였다.

34) 견훤의 서신과 왕건의 답서에 나오는 ‘족하’를 ‘그대’라고 해석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족하’는 존칭어로서 ‘족하’ 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大鳥知郎足下再拜白”에서의 ‘족하’ 또한 마찬가지다.

A. 居延漢簡

賞伏地再拜請

子卿足下善毋恙甚苦事謹道

毋憂也萬〈葦〉未有取之者(居延漢簡甲乙編：34.7A (乙27版) )

必為急賣之子麗校郵書□□必則明□□□□□謹□□□

奉錢再拜子麗足下錢當曲節□ 張君長(居延漢簡甲乙編：142.28B (甲796B) )

成伏地再拜請

卿足下善毋恙□苦候望春(居延漢簡釋文合校：991：合45.6B)

仲伏地再拜請

□請明君足下良苦官事 (居延漢簡釋文合校：1778：合74.9)

博伏地再拜言

中前足下苦良□ 幸□(居延漢簡釋文合校：4973：合218.21)

伏□ 言

君夫人足下毋恙

□□□□□(居延漢簡釋文合校：4425：合198.14)

B. 居延新簡

累伟少多請已足之不敢忽它毋勿可已进叩头死罪謹請威君书再拜白

□足下 …… (E.P.T 51 : 98A)

少卿足下善毋恙惠君不起病甚疼无□愿自□迫府君新视事

…… 甚善塞外…… (居延新簡 E.P.T 51 : 233A)

居延令弘伏地再拜少卿足下□□□□□病□熱膝腫□(居延新簡：4632：E.P.T53:296A)

忠頃伏地再拜請

尊長定足下善毋恙良苦事宜當伏前謝道將吏聞急不得左右死罪死罪因

長定忠欲有所道叩頭報尊幸步足下之道上見思報事叩頭幸甚(居延新簡：5106：E.P.T56:347A)

道里長卿幸甚伏地再拜請長卿足下謹謹下疾(居延新簡：5302：E.P.T57:84A)

君卿足下毋恙元始元年二月甲子不侵候長×(居延新簡 E.P.T10 : 6)

위의 사례는 ‘족하’가 존칭어로 사용된 예들이다. 少卿足下, 君卿足下, 君夫人足下 등 여러 사례를 살필 수 있다. 족하 칭호는 관인은 물론 여성에게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족하 칭호의 광범함을 엿볼 수 있다.<sup>35)</sup> 그

런데 이들의 상당수는 ‘再拜...足下’의 형식을 띠고 있고, 또한 ‘再拜白△足下’의 형식도 있어, 월성해자 2호 목간과 유사하다. 이는 족하가 재배와 세트 관계였음을 추측케 한다.

고대 일본의 ‘~某前白(申)’ 형식의 문서목간이 중국 6조 시대의 書狀 내지는 문서투식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한반도를 경유하여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sup>36)</sup> 윤선대는 월성해자 2호 목간의 ‘某足下白’ 형식의 문서투식이 고대 일본의 ‘某前白(申)’ 형식 문서투식의 직접적인 연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sup>37)</sup>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야 하겠지만, 족하는 존칭어이고, 뒤에 再拜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에게’의 뜻을 가진 ‘前’보다는 존칭어인 ‘足下’는 그대로 살려 “足下再拜白”의 투식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족하 용례 또한 목간에서 많은 수가 발견되었다. 나라문화재연구소 「木簡庫」를 검색하면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西隆寺 유적에서 발견된 2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木簡番号 49

·○及勝内函函\○《謹及解○私及及私年及\○勝勝寶元年\退□退○私○  
□[猪カ]○及\謹解謹解○解解私及私及私及私私·「□」卿足下○「啓○樂禮乙□  
」(平城京右京一条二坊(西隆寺跡東門地区))<sup>38)</sup>

35) ‘족하’ 용어는 전국시기에는 각국 군주의 칭호로 사용되었고, 진 시황제 때 陛下 칭호가 만들어지면서 진한시대에는 諸侯의 칭호로써, 그리고 보통 남성간의 칭호로써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란시기에는 장수들에게 존칭으로 쓰였다고 한다(白芳, 『人际称谓与秦汉社会变迁』, 人民出版社, 2010, 102~116쪽). 그러나 족하는 2인칭 경칭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의례상의 표현이라는 것이다(聶菲, 「文牒套语中的“足下”考辨」 www.bsm.org.cn/s... - 2016-5-13). 한편 일본 학계의 성과도 유의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丸山裕美子, 「書儀の受容について - 正倉院文書にみる‘書儀の世界’-」, 『正倉院文書研究』 4, 1996 참조.

36) 東野治之, 「木簡に現われた「某の前に申す」という形式の文書について」, 『日本古代木簡の研究』, 塙書房, 1983.

37) 윤선대,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137~138쪽.

38) <http://mokkanko.nabunken.go.jp/ja/6BSR0032000049>

木簡番号 2

大石常人謹啓○菜二連 / 右得人囑請云件物→ / □ [請 ♪] 莫□者仍□→ Ⅱ ·

〈 万呂謹啓○御足下○六→(平城京右京一条二坊 (西隆寺跡東門地区))<sup>39)</sup>

이 가운데 연대가 명시된 天平勝宝 元年은 749년으로 8세기의 사례다. 다른 자료를 검색할 경우 여러 사례가 더 찾아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월성해자 2호 목간의 중심 연대가 6세기임을 감안하면, 존칭어 족하도 중국에서 시작하여 한국을 거치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추측된다.

## 5. 맺음말

월성해자 2호 목간은 4면 문서목간으로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1면이 어느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읽는 순서도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판독과 해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大鳥知郎足下’ 운운한 부분을 제1행으로 보고, 이 구절에 대한 기왕의 판독과 해석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과 종래 흔히 “大鳥知郎足下万拜白了(?)”라 한 판독은 “大鳥知郎足下再拜白了(?)”로 읽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大鳥’를 ‘大鳥’로 읽어 17관등 가운데 15위 大鳥의 관등으로 파악한 견해가 많았으나, 大鳥는 ‘大鳥’로 파악해야 하며, 관등이 아닌 인명으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大鳥知郎은 大鳥(인명)+知(존칭접미사)+郎(존칭접미사), 또는 大鳥知(인명)+郎(존칭접미사)로 파악하였다. 또한 백제 능산리 목간과 신출토 월성 해자 목간의 사례, 그리고 신라 문헌자료를 통해 ‘万拜’보다는 ‘再拜’로 판독한 견해가 옳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再拜란 용어는, 문헌상으로 5세기의 사실부터 등장하며, 6세기 진평왕대에 많이 나타나고, 삼국 통일 이후 확산되었다, 이는 중국식 문서형식과 유교적 예제가 정착되어 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9) <http://mokkanko.nabunken.go.jp/ja/6BSR0025000002>

足下는 ‘발 아래’의 뜻과 존칭어로서 ‘그대’ 정도의 뜻 등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월성해자 목간은 존칭어 ‘족하’를 그대로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족하의 사례를 한국문헌자료에서 찾아, 후삼국시대 국왕 사이에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족하 칭호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물에게 사용하였으며, 대조지랑 또한 낮은 신분의 인물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였다.

존칭어 ‘足下’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진한시대 간독자료와 문헌자료에서 많은 족하의 용례가 있었다. 시기에 따라 사용 대상에 차이가 있었으나, 그 후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월성해자 2호 목간에서 족하가 사용되었고, 8세기 전반 경 일본의 족하 사례를 통해, 이 용어 또한 중국에서 신라로, 신라에서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추론하였다.

月城垓子 2호 목간은 존칭어 ‘足下’가 신라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였다. 만약 이 목간이 아니었다면, ‘足下’ 칭호는 신라 말기에나 사용되었다고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목간으로 인해, 그 사용 시기를 소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월성해자 2호 목간에서 찾아낸 또 하나의 성과였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A. 보고서 및 단행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月城垓子 발굴조사보고서(Ⅱ) -고찰편-』, 200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2019.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200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古代木簡』, 예맥출판사, 200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예맥출판사, 2006.  
이경섭, 『신라 목간의 세계』, 경인문화사, 2013.  
이용현, 『韓國木簡基礎研究』, 신서원, 2006.  
白芳, 『人际称谓与秦汉社会变迁』, 人民出版社, 2010.  
東野治之, 『日本古代木簡の研究』, 塙書房, 1983.  
市 大樹, 『飛鳥藤原木簡の研究』, 塙書房, 2010.

### B. 논문

- 權仁漸, 「목간을 통해서 본 사경소의 풍경」, 『震檀學報』 119, 2013.  
金洛中, 「新羅 月城의 性格과 變遷」, 『韓國上古史學報』 27, 1998.  
김병준, 「월성 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중국 출토 고대 행정 문서 자료와의 비교-」, 『木簡과 文字』 20, 2018.  
金永旭, 「古代 韓國木簡에 보이는 釋讀表記」, 『口訣研究』 19, 2007.  
윤선태,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2005.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木簡과 文字』 20, 2018.  
李京燮, 「新羅 月城垓子 木簡의 출토상황과 月城 周邊의 景觀 변화」,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李相俊, 「慶州 月城의 變遷過程에 대한 小考」, 『嶺南考古學』 21, 1997.  
李丞宰,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震檀學報』 119, 2013.  
장일규, 「해제 : 현전하는 우리나라 고대의 유일한 문집」, 『계원필경집』1, 한국 고전번역원, 2009.  
鄭在永, 「月城垓子 149號 木簡에 나타나는 吏讀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

호, 2008.

- 朱甫暉, 「朴堤上과 5세기 초 新羅의 政治 動向」, 『慶北史學』 21, 1998.
- 주보돈, 「月城과 垓字 출토 木簡의 의미」, 『木簡과 文字』 20, 2018.
- 李均明, 「韓中簡牘 비교연구 -중국 간독의 분류설명에 의거하여-」, 『木簡과 文字』 창간호, 2008.
- 李成市, 「韓國木簡研究의 現況과 咸安城山山城 出土의 木簡」,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 李成市, 「朝鮮의 文書行政」, 『文字と古代日本 2 -文字による交流-」, 吉川弘文館, 2005.
- 渡辺晃宏, 「月城垓字 출토 木簡과 日本 古代木簡의 비교」, 『木簡과 文字』 20, 2018.
- 市 大樹, 「慶州月城垓字出土の四面墨書木簡」, 『日韓文化財論集』 I, 奈文研學報 第77冊, 2008.
- 三上喜孝, 「文書様式「牒」の受容をめぐる一考察」, 『山形大學歴史・地理・人類學論叢』 7, 2006.
- 深津行徳, 「古代東アジアの書體・書風」, 『文字と古代日本 5 -文字表現の獲得-」, 吉川弘文館, 2006.
- 丸山裕美子, 「書儀の受容について -正倉院文書にみる‘書儀の世界’-」, 『正倉院文書研究』 4, 1996.

### C. 주요 사이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www.nrich.go.kr/gaya/](http://www.nrich.go.kr/gaya/)
- 奈良文化財研究所, <http://mokkanko.nabunken.go.jp/ja/>
- 聶菲, 「文牒套语中的“足下”考辨」 [www.bsm.org.cn/s...](http://www.bsm.org.cn/s...) - 2016-5-13.
-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Abstract

## On the Honorific Language “*Chokha*” in Silla’s Wooden Strip Number Two Excavated at the Moat of the Wölsöng Palace

Lee, Young-ho

The wooden strip number two, excavated at the moat of the Wölsöng palace, is a four-page document in the form of a wooden strip and has caught the attention of researchers on Silla history. This study has critically examined prior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s on its first line. As a result, it has found that “*taeojirang*” was misread and instead should be read as “*taejojirang*” and that “*taeo*” is interpreted not as the fifteenth office rank in Silla’s seventeen office ranks but a person’s name “Taejo” or “Taejoji.” Also, instances appeared in wooden strips of Silla and Paekche as well as document materials concerning the Silla kingdom prove the interpretation of “bowing twice” rather than that of “bowing ten thousand” to be right. The term “bowing twice” first appeared bibliographically from the fifth century, frequently appeared from the King Chinp’yöng’s reign in the sixth century, and spread since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ich this study understand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nfucian proprieties in Silla.

The term “*chokha*” had two meanings: “below one’s feet” and “you” as an honorific language. But the Wölsöng wooden strip indicates that the honorific language “*chokha*” should be interpreted as it was meant

by. In addition, documents materials which include instances of “*chokha*” demonstrate that it was used among kings in the period of the Later Three Kingdoms. This means that the term was used in expressing men of considerable standing and that a man named “Taejo” or “Taejoji” was not a person of low rank.

This study understands the honorific language “*chokha*” as having originated in China. Decipherable materials and document materials have many examples of how “*chokha*” were used. There were differences in use over time, but the term had always been used as an honorific language. Judging from the fact that it appears in the wooden strip number two at the moat of the Wölsöng Palace as well as the Japanese instances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h century, it is assumed that China transmitted it to Silla and then Silla transmitted it to Japan.

The wooden strip number two excavated at the Wölsöng moat is the earliest source material demonstrating that the honorific language “*chokha*” was used in Silla. Without it, we might have still believed that the term was used in the late period of Silla. Thanks to this wooden strip, it is possible for us to date back the period of the term’s use to much earlier times, which may represent another major academic achievement resulting from its intensive study.

**keywords**

the Moat of the Wölsöng Palace, Wooden Strip, the Honorific Language, *Chokha*, *taeojirang*,